영광군 e-모빌리티, 동남아 진출 시동

인도네시아 수출상담회 36억 계약

발리·기안야르시 수출 확대 협약

장세일(앞줄 오른쪽 네 번째) 영광군수가 이끄는 인도네시아 시장개척단이 지난달 27일 현지에서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산업의 수출 확대 판촉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이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e-모빌리티 교통수단이 인도네시아를 교두보 삼아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e-모빌리티(Electronic mobility)는 초소형 4륜 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간편 이동 수단을 뜻한다. 매년 이용자들이 크게 늘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영광군은 장세일 군수가 이끄는 시장개척단이 지난달 24~28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발리 지방정부, 기안야르시, 수카와티 데사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산업의 수출 확대와 실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전기이륜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앞서 영광군은 올해 초 인도네시아 전기이륜차 산업협회(AISMOLI)와 협약을 맺으며 시장 진입 기반을 다져왔다.

장 군수는 발리 정부와의 면담에서 영광군의 e-모빌리티 원스톱 지원체계를 소개했고, 발리 교통부는 이에 대해 높은 관심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어 기안야르시, 수카와티 데사와는 실증사업과 특수목적차량 도입, 교통 인프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영광군은 또 인도네시아 현지 전기이륜차 기업 '볼토 메카닉스(VOLTO MECHANIX)'를 방문해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차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전남 기업의 수출 거점이 될 국제협력사무소도 방문했다. 이 사무소는 통관, 생산, 인증, 판매,에프터서비스(AS) 등 전반적 수출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에는 발리 현지에서 관내 기업 9개사가 참여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총 871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하고 이 중 4개사가 252만달러(약 36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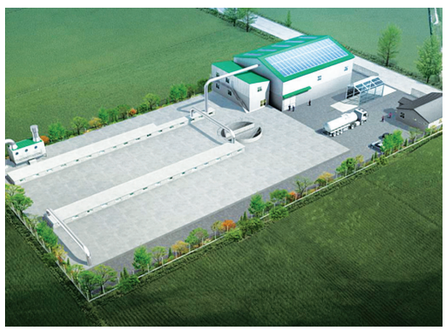
이 중 ㈜워커는 단독으로 2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 활동은 영광 e-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공적개발원조(ODA), 해외인프라 투자개발(KIND) 등 다양한 국제사업과 연계해 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암군 하루 95t 처리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농식품부 공모 선정…국비 확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조감도.

영암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이번 선정으로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 87억4000만원을 투입해 하루 95t 규모의 돼지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추진한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퇴비(10%)와 액비(80%), 여과액비(10%)로 전량 자원화할 예정이다.

특히 여과액비는 사계절 시설하우스나 골프장 잔디 등에 관정을 거쳐 살포할 수 있어 농가의 비료값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양돈농가는 올해 6월 말 현재 29호로 9만2516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대규모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영암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외부 반출도 제한돼 분뇨 저장조 유출 우려, 관외 위탁 처리 비용 부담 등 2차 피해도 겪었다.

공모 선정으로 들어설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민간형 지원사업의 성격상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을 민간업체가 수행하고, 영암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지원을 담당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축산환경 개선, 가축 질병 대응, 친환경 농업 확산이라는 3대 효과를 함께 이루는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지속가능한 농축산 모델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해남사랑상품권 7월부터 10% 할인 판매

할인구매 한도, 1인당 70만원

해남군은 7월부터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에 들어갔다.

할인구매 한도는 1인당 70만원까지이다. 이번 상품권 할인판매는 지류와 카드·모바일 상품권에 차등을 두고 실시된다.

지류상품권은 20만원까지,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1인 70만원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다.

1인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류상품권 20만원 구입 후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50만원 추가 구매도 가능하다.

차등적용은 행정안전부의 카드·모바일 활성화 정책과 지류 상품권의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 지류 상품권의 비중을 줄이고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카드·모바일 상품권 이용자에게 결제 금액의 5%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캐시백 이벤트도 계속된다.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면 10% 선할인, 5% 후캐시백를 적립 받을 수 있어 15% 할인을 받는 셈이 된다.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설치와 거래은행 계좌등록, 카드발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를 원하는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없이 지역상품권 앱을 통해 현장에서 QR 결제를 하면 된다.

또한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변경으로 카드·모바일 상품권 충전금 보유 한도가 2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해남군도 보유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충전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하기' 기능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로, 지난 2019년 4월 발행 이후 6년 만에 누적판매 7000억원을 달성했다.

또 올해 상반기 914억원을 판매하면서 연내 8000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하반기 상품권 10% 할인판매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생경제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630억원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민간 추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목포시 '부정적' 의견 공식 회신

목포시가 최근 민간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허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식 회신했다.

목포시는 지역주민 수용성 부족, 환경피해 우려, 재난 대응 미비, 입지 타당성 결여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문제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목포시 대양산단 인근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지난해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청에 업체 측의 미제출로 취하됐으나 최근 다시 제출된 상황이다.

시는 해당 사업이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이행했을 뿐 실질적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으며, 지역주민과 시의회, 국회의원, 환경단체 등에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재 목포시에서 건립 중인 공공자원회수시설과의 누적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근에 공동주택, 요양병원,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대기오염물질 증가에 따른 건강피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태풍·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응계획이 부재하고, 의료폐기물 소각 특성상 고위험 유해 물질 관리가 요구됨에도 관련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하다는 점도 부적정 사유로 제시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하늘에서 본 고금 덕암산 생태공원. 〈완도군 제공〉

완도군, '고금 덕암산 생태공원' 앞당겨 준공

탐방로·편의시설 '힐링 명소'

완도군이 '고금 덕암산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2024~2026년 3개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군은 전남도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조기 예산을 확보하며 2년 만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된 생태공원은 고금면 청용리 일원에 조성됐으며, 1km 길이의 생태 탐방로를 중심으로 그네 의자, 트리하우스, 해먹 벤치, 산림욕 의자 등 다양한 힐링 시설이 들어섰다.

또 경관 조명과 보행로도 설치해 야간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15대 규모의 주차장과 숲속 데크 무대,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췄다.

공원에는 배롱나무·서부 해당화·이팝나무 등 교목 8종 276주, 치자나무·꽃댕강 등 관목 8종 3만3000주, 수국·작약·맥문동·꽃무릇 등 초화류 6만7000본이 식재돼 사계절 내내 꽃과 녹음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공공앱' 강우량·여객선 정보 제공

공공앱 고도화 실시간 서비스

진도군은 '진도군 공공앱'을 통해 강우량 정보, 실시간 여객선의 위치와 결항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진도군 공공앱은 진도군 전역과 읍면별 실시간 강우량 정보를 시각화해 시간별 누적량과 강우량(전일, 금일, 월간, 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도군 관내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운항 시간과 실시간 위치, 결항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진도군에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앱을 고도화했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